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9.14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장재훈 부회장 “수소 산업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…혼자선 어렵다”
(‘26.9.10, 머니투데이)

-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해 기업 투자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함
- 한국 수소 모빌리티 시장은 보급·연료비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성장했으나, 발전·산업 분야에는 더 강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함
- 글로벌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인증 상호 인정과 운송·저장 등 최종 도입 비용 개선이 필요하며, 향후 10년은 본격적인 규모 확대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

○ 한전기술-포스코이앤씨, 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한다 (‘26.9.11, 에너지데일리)

-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는 10일 소형모듈원자로 협력을 초고온가스로 및 수소환원제철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함
- 혁신형 SMR·초고온가스로를 포스코그룹 HyREX와 연계해 무탄소 전력·청정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플랫폼을 구상함
- 한국전력기술의 원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의 시공·산업플랜트 역량을 결합해 기술개발·사업화 및 사업 기회 발굴에 협력함

- 유지보수 지연 구조에 운영 공백 반복...수소차 이용 불편 가중
(’26.9.10, 가스신문)
 - 충전소 관계자들은 설비 고장 후 정비 인력·부품 투입 지연으로 장기 가동 중단과 이용 불편이 반복된다고 설명함
 - 냉각설비 업체가 인력 부족으로 요청 2주 뒤 출동하거나, 점검 후 부품을 준비해 다시 방문하면서 복구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됨
 - 수리 일정은 충전소, 운영사, 설비사, 부품사를 거쳐 정하며, 구축 후 통상 2~3년 무상 정비가 끝나면 운영사 비용 부담이 증가함
 - 전문가들은 설비 여유 용량·내구성 확보와 직영 정비, 부품 국산화·표준화, 지역 정비인력 확충으로 대응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함
- HD하이드로젠, 무급수 SOFC로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
(’26.9.11, 월간수소경제)
 - HD하이드로젠은 평택항 포승산단의 연산 50MW급 공장을 9월부터 본격 가동해 첫 상용모델인 250kW급 HD250 양산에 나선다고 함
 - HD250은 초기 부분산화 개질 후 정격운전에서 자체 전기화학 반응의 고온 수증기를 재활용하는 무급수 방식으로 설계됨
 - 회사는 HD250 부품을 약 60% 이상 국산화했으며, 부하 추종·출력제어와 부품 교체가 쉬운 모듈형 설계로 운전·정비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함
 - 평택공장은 연구개발과 시제품 시험, 조립을 연계하고, 생산관리 시스템에 조립 및 전수 시험 데이터를 기록해 품질관리와 원인 분석에 활용함

□ 해외

- [미국] 트웰브, 에어플랜트 원 수소생산 확대에 최대 4500만 달러 확보 ('26.9.10, Fuel Cell Works)
 - 트웰브는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의 에어플랜트 원 건설금융을 차환하고 수소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4500만 달러(약 608억 원)의 대출약정을 확보했다고 함
 - 엔듀런스 캐피탈과 노무라가 공동 주도한 이번 금융에는 부지 내 추가 수소생산을 비롯한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옵션이 포함됨
 - 지난 6월 10일 개장한 에어플랜트 원은 물·재생전력으로 만든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고, EFT에서 도입한 피셔트롭슈 기술을 이용해 항공유 E-Jet과 E-Naphtha를 생산함
 - 초기 생산능력은 연간 약 4만~5만 갤런이며, 트웰브는 E-Jet이 ASTM 규격을 충족하고 항공기나 엔진·공항시설 개조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
 - 알래스카항공은 에어플랜트 원에서 생산한 E-Jet을 사용해 2026년 중 정기 국내선을 운항할 계획임
 -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에 따른 배출감축 실적을 북앤드클레임 방식의 계약을 통해 자사 출장에 반영하기로 함



< 사진: 에어플랜트 원 e-연료 생산시설, 출처: Twelve >

- [나미비아] SDG 나미비아 원, 다우레스 그린비료 사업에 최대 360만 달러 지원('26.9.10, Fuel Cell Works)
- SDG 나미비아 원은 에너센스 에너지 나미비아와 다우레스 그린비료 사업 개발자금 협약을 체결하고 총 707만 달러(약 95억 원) 이내의 개발비 중 최대 360만 달러(약 49억 원)를 지원한다고 함
- 에룽고 지역에 계획된 상업시설은 수전해 40MW와 태양광 60MW, 풍력 10MW, 배터리 저장장치 65MWh로 구성될 예정임
- 사업자는 연간 그린암모니아 최대 2만 톤과 황산암모늄 비료 최대 8만 톤을 생산하고, 이산화탄소 약 4만 8000톤을 감축하며 상시 일자리 최대 115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
- 개발자금은 기본설계와 시장개발, 인허가, 환경·사회 조사 및 구매계약 체결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
- 금융조달 종결은 2028년 2분기, 상업운전 개시는 2030년 1분기를 목표로 하며, 사업은 독일·영국 정부와 UNIDO가 지원한 선행 실증을 기반으로 추진됨
- 유럽연합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인베스트 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는 SDG 나미비아 원은 초기 개발자금과 공동개발 지원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임



< 사진: 다우레스 사업 개발자금 협약, 출처: agle FM Namibia >